진장이야기



주 최 문화체육관광부 밀양시 주 관 Miryang Cultural City Center 밀양시문화도시센터

진장이야기

Miryang Cultural City Center
밀양시문화도시센터



Culture of Jin-Jang

밀양의 최초의 이름인 미리미동국[彌離彌凍國], 삼한시대 변한12소국중 하나로 밀양땅에 풍부한 자원들을 바탕으로 독자적 문화의 꽃을 피웠다. 그 시대 삶과 문화을 상징한 누에와 불을 표현한 상형문자가 다시 밀양땅에 뿌리내려 찬란한 문화를 재생시키리라.

CONTENTS

1. 진장이야기 04

2. 진장 08

3. 진장사람들 14

영감, 자귀꽃이 피었오 14

제약산의 여름처럼 18

푸르른 인생으로 갈무리를!

싸리 꽃 피는 밭 언덕의 꿈 22

내 인생의 계절, 곱고 풍성한 가을. 26

'난 귀염둥이 복둥이여. 29

다들 나를 우리 귀한 애기라고 불렀어'

사랑에 빠진 여인. 32

"고추 깻잎 멀미 45년 참 매운 세월이었지" 35







진장의 이야기

이곳 진장에 대한 유래를 알아보니 몇몇 노인들은 별포군이 진을 친 곳이라 하고, 몇몇 어른들은 물이 자주 들어 질퍽한 땅이 되어서 진장이란 지명이 붙었다고 한다. 그럴듯한 말이다. 진장 여인들의 삶은 홍수만 지면 집에 물이 들어 가재도구들을 말려야 하는 일이 매년 반복되었으리라. 당연 그 힘든 세월들이 오래도록 가슴에 각인되었으리라.
진장은 별포군의 주둔지라기보다 물이 들어 진창한 곳이라는 말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적어도 이 곳에서 수십 년을 살아 온 노인들에게는 말이다.

할머니들은 대부분 이곳으로 시집을 와 정착했거나 청도 매전면 등 타지에서 학교가 가까운 곳으로 이주를 와 정착했다. 아이들의 공부가 시급했기 때문이다.
남부경로당 노인들의 기억 속에는 1960년경 사하라 태풍으로 강물이 불어나 가축들과 집들이 강물에 둥둥 떠내려 왔던 시절의 참담했던 장면들을 많이 떠 올렸다. 구호품으로 하늘색 모포 담요를 받아 아직도 간직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었다. 콩나물 공장이 있었다 하고 미나리 밭이 넓게 분포되어 있었다는 말도 노인들의 입에서 흘러 나왔다. 당시 홍수가 져서 사람들도 가끔 물에 떠내려 오고 했는데 진장에 남자들은 강물에 인간띠를 만들어 구조 했다는 무용담도 있었다. 홍수로 인해 살림이 곤궁해지고 삶이 피폐해지기를 반복하면서 힘들었던 삶을 악착같이 살아낸 것이다. 그래서 진장은 이웃간의 따뜻한 정이 유별나다. 남자들의 의리와 우정도 끈끈하다.

60년대와 70년대에는 물이 귀했다. 공동 우물이 있어 물동이를 이고 날마다 물을 길어 날랐다고 한다. 우물은 전신 전화국과 밀양고등학교 담 사이 골목에 있었다. 여기에 우물은 펌프로 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는 곳이었고 식자재마트 주변에는 두레박으로 길어 쓰는 우물이 있었다.

사람 삶의 공간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우물이 아니던가? 물이 귀하여 빨래를 대야에 이고 남천강가에서 세탁을 한 것은 두 마을 모든 아낙네들의 일상이었다. 겨울에는 꽁꽁 언 강에 얼음을 깨고 빨래를 했다. 미래 경로당 할머니들 말씀에 의하면 하수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강가에 음식물 잔반을 처리했다.

지금 밀양문화원 부지에는 나래비집이 있었다. 나래비집은 누에를 키우던 잠실인데, 1923년 잠사전문대 전신으로 일본인 교장이 3대에 걸쳐 학교를 운영했다 1924년부터 해방되는 1945년까지 밀양공립농잠학교는 일본어로 된 교과서로 일본인 교사들이 수업을 했다. 때문에 롯데아파트와 도뮤트아파트 자리에 넓은 뽕밭이 있었고 그곳에서 수확한 뽕잎으로 나래비집 적산가옥에서 누에를 쳤다.

밀양공립농잠학교 학생들이 뽕잎을 재배하고 누에를 키웠으리라고 짐작해 본다.
해방 후 잠실이 쓸모가 없어지자 집 없는 주민들 11가구가 1.5평밖에 되지 않은 방 한 칸에서 많은 가족들이 동거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다. 이 곳 노인들은 잠실을 나래비 집이라고 기억했다. 길게 옹기종기 늘어선 연유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또 잠실을 관리하는 이들의 관사가 있었다. 이층으로 된 적산가옥이 그 곳이다. 해방 후 만주에서 고향을 찾아와 정착한 사람들은 매년 반복되는 물난리와 지대가 낮아 질퍽대는 땅에서 억척같은 삶을 개척했다. 그 곳이 지금의 진장이다. 어쩌면 진장의 다른 이름은 질척대는 삶을 단단한 땅으로 일구어 낸, 진실된 삶의 넓은 운동장이라는 표현이 그들 삶을 보상해주는 이름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은 넓은 뽕밭 이었던 곳에 고급 아파트가 들어서고, 홈 플러스가 자리해 중산층들이 정착했지만 이곳 원주민들에게 진장은 힘들었기에 더욱 떠날 수 없는 마지막 남은 희망의 땅인지도 모른다.

6.25 전쟁이 끝나고 보도연맹 사건의 희생자들의 잘린 목이 영남루 근처 당시의 뱃다리껄에 걸려 있었다는, 끔찍했던 전쟁 후의 일들을 기억하는 할머니들도 있었다. 어른들로부터 전해 들었던 이야기일테지만 전쟁의 참상은 이곳 밀양도 비껴가지 못했다.
한국전쟁 발발 이후 1950년 7월부터 8월까지 밀양지역 국민보도연맹원 등 예비 검속자들은 밀양경찰서 및 관할지서 경찰과 경남지구 CIC에 의해 연행되거나 소집 통보를 받고 자진 출두했다. 그 뒤 밀양경찰서 유치장과 밀양읍 나카노공장, 삼랑진지서, 삼랑진역 강생회 지하창고 등에 구금되었다가, 1950년 8월 중하순경 청도군 매전면 곰티재, 밀양군 삼랑진면 안태리 뒷산, 검세리 깐촌 낙동강변, 미전리 미전고개 일대에서 집단 사살되었다.
한국사회 격변의 역사들이 밀양에도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은 채 각인되어 있었다.

74년대 잠사 전문학교에서 75년 밀양농잠전문학교 79년 밀양농잠전문대학 91년 밀양전문대학 기간에는 진장에도 경제가 발전했다. 외지에서 온 학생들이 대부분 학교근처에 하숙을 하거나 자취를 했기 때문에 진장주민들의 살림살이도 조금씩 나아졌다.

참 따뜻한 진장

고증식 시인

작물시험장 신호등 사거리 건너
백발 할머니 홀로 지키는 로터리슈퍼 앞
허름한 중년들 둘러서서 소주잔을 돌린다
차가운 평상 바닥 저무는 한 해의 끝에서
때 전 연장 가방 엉거주춤 부려놓고
몸으로 떼워 낸 하루를 털어내고 있다
오늘따라 신호등 불빛도 느긋하기만 한데
자주색 빵모자가 어묵 한 점 밀어 넣으며
뭐라 뭐라 듬성한 잇새로 김을 내뿜자
국방색 털바지와 움츠린 목장갑들 서둘러
고개를 주억 거린다

나도 따라 절로 머리가 끄덕여져
맨몸으로 달려가 저 술 한잔 받고 싶다
느티나무 떨고 선 우듬지 끝으로
저녁까치 한 마리 기웃거리며 가고
천천히 내리는 어둠을 거슬러 오르는
냄비 속 김발 한 줄



고증식시인의 눈에 비친 진장 작시사거리 풍경이다. 늙은 느티나무 아래에 하루의 노동을 끝낸 노동자들의 고단한 휴식을 맛깔나는 시로 풀어놓았다. 진장사람들의 질퍽한 삶의 한 장면이라 옮겨본다.
몇 백년 동안 키 큰 느티나무는 진장사람들의 삶을 고스란이 지켜 보았으리라. 할머니가 꾸려갔던 작은 슈퍼자리는 단팥죽을 파는 카페로 바뀌었다. 한때 느티나무 아래 평상이 놓여 있었고 저녁 어스름에는 이 지역 노인들과 주민들이 모여 휴식을 취하고 있는 풍경을 종종 볼 수 있었다.

1969년에서 1973년까지 남천강 둑을 지금의 높이로 쌓기 전 강에는 군데군데 모래톱이 쌓였고 말 구르마에 모래를 실어 내다팔아 생계를 잇는 사람들도 있었다. 또 미르치과 아랫부분에는 넝마주이들과 거지들이 함께 모여 공동생활을 하며 전쟁의 상처를 극복했다고 증언했다. 이후 정부에서 롯데 아파트 주변에 그들을 위해 새마을 가옥을 지어 이주시키고 둑을 축조했다.
이곳 거지촌에는 개천에서 용이 된 어떤 입양아의 슬프지만 소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온다. 거지촌에 넝마주이로 생계를 이어가던 상이군인의 아내가 임신 중 꿈을 꾸게 되었는데 치맛자락에 둥근 달이 가득 담겼다고 한다. 그 꿈을 꾼 후 달덩이처럼 얼굴이 둥근 사내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키우기가 힘들어 대구에 있는 간장공장 사장집으로 입양을 보냈다. 그 후 아이는 무럭무럭 성장해 판사가 되었다는 기적 같은 이야기를 개천에서 용 났다는 말로 전해지고 있다. 진흙에서 피어난 연꽃이라 표현했다.

진장의 남자들은 대부분 영남 작물 시험장에서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그나마 소작농들이 대부분이었지만 남의 땅을 빌어 일찍부터 고추 하우스를 경작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땅을 사서 집을 짓기도 했다.

'노인 한사람이 떠나면 박물관 한 곳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는 말은 누군가 진장인들의 삶의 기록을 남겨놓지 않으면 먼 훗날 누가 척박한 진장을 기억하여 회람 할 것인가!
진장에는 1980년대까지 블록공장과 주사기공장 아이스크림공장 콩나물공장이 있었다. 이들 공장들은 산업화와 근대화의 물결에 밀려나 지금은 초라하게 그 날의 기계소리만 환청처럼 허공에 울러 퍼지고 있다.



진장

진장은 행정구역상 강벽 둑 쪽으로는 삼문동으로 되어 있지만 내이동에 속한다. 밀양은 동으로 내일동, 서로 부북면, 남으로 삼문동, 북으로 교동에 접한 지역으로 그 연혁은 밀양지에 노상, 송정이 나오고 경상도읍지(1832년 규장각본)에 노상리, 노하리, 송정리가 나온다.
이로 미루어 본다면 노상리, 노하리, 송정리가 곧 내이동의 전신임을 알 수 있다. 1914년에 행정구역의 폐합에 따라 노상리, 노하리, 송정리, 교리의 각 일부와 부북면의 운전리, 감천리, 용지리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내이리라 했고, 1931년 4월1일 부로 밀양면이 밀양읍으로 승격되고, 1989년 1월 1일 밀양읍이 다시 밀양시로 승격됨과 동시에 내이동으로 호칭이 변경되었다.

그동안 운전리, 감천리, 용지리는 모두 부북면으로 돌려 주었고, 2015년 현재 15개통 89개반으로 행정구역이 구분 조정되어 있는 총 면적 3.06km 의 지역이다. 내이동의 지명 변경 과정은 노상, 노하, 송정이 내이리로, 내이리가 다시 내이동으로 그 호칭이 변경되어 온 것으로 내이동이라는 명칭은 부내면에서 둘째가는 동리라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내이동은 밀양시의 중앙부에 위치하여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창원지방검찰청밀양지청이 소재하고 있고 밀양고등학교를 비롯하여 밀성고등학교, 밀성제일고등학교, 밀성중학교, 밀성여자중학교, 밀성초등학교 등 6개교가 소재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행정과 교육의 중심지이다.

댓껄 (현 내이7통 지역)



밀양읍성에서 해천의 루교를 지나 사포쪽으로 통하는 큰길을 이르는 말로써 지금의 밀양고등학교의 앞마을과 국립식량과학원 기능성 작물부 입구의 사거리 부근을 속칭 댓껄이라고 한다.
'댓껄'이라는 명칭은 이 길 주변에 옛날에는 대나무가 많이 있어서 그로 인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한편 '큰거리' 곧 '대거리'라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이라는 말도 있다

진장 (현 내이1통, 7통 지역)

옛날 밀양부 관아에 속한 별포군의 주둔지가 현 한국전기연구원 밀양나노센터와 국립식량과학원기능성작물부 부근이라 한다. 지금의 응천강은 제방을 축조하기 전에는 강물이 자유로이 드나들며 강변이 마치 넓은 운동장 같이 되어 군사 훈련장으로는 안성맞춤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별포군의 군사훈련장, 곧 '진을 치는 장소'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라는 것이다. 영남농업시험장 입구 사거리에서 남쪽, 제 2 밀양교에서 북쪽 지역 일원이 진장에 해당되는데, 이곳은 법정구역으로는 삼문동에 속하는 번지를 가진 지역이고, 행정상으로는 내이동에 속하는 지역으로 되어 있다

동가리 신작로 (현 내이동 2, 3통과 4, 8통의 경계지역)





1970년대 동가리 신작로

속칭 '벙어리 신작로', '버버리 신작로' 라고도 한다. 내이동 중심부를 동서로 관통한 도로인데 현 한국전기연구원밀양나노센터와 밀양고등학교 서편의 도랑이 지금은 복개가 되어 있어 길이 뚫려져 있지만 옛날에는 도로의 서편 끝 쪽이 뚫려져 있지 않아 도로가 동가리로 되어 있었다. 그런 이유로 해서 '동가리 신작로'라는 명칭이 붙게 된 것이다.

토끼바위 (신촌 사거리 지점)

국도24호선과 국도25호선이 교차하는 부북면 방향과 시청방향의 신촌4거리 북쪽에 외관상 자연암처럼 보이는 큰바위로 옛날부터 '토끼바우', '뒤께바우'라는 속명으로 통하고 있다. '토끼바위'라는 이름은 옛날에 바위 두 개가 토끼의 귀 모양으로 나란히 서 있었다는 데서 생긴 이름이라고 전한다. 그런데 일본인이 부북행 신작로 (도로)를 만들면서 두 개 바위 중 한 개는 깨어 없애 버리고 지금은 한 개만 남게 되었다고 한다.

옛날부터 여러 사람들이 토끼바위에 불을 켜고 치성을 드리는 일이 있었으며 이 주변의 들을 '뒤께바우들' 이라고 하나 지금은구 획정리로 주택 및 상가지역으로 변하였다.
밀양시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립식량과학원 기능성 작물부를 비롯한 주요기관이 집중되어 있고 초·중·고 6개교가 소재하고 있는 행정·교육의 중심지이며, 대중교통수단인 시외버스터미날이 소재하여 교통 요충지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으며, 향후 북성지구·내이 제3지구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면 명실상부한 밀양의 중심동으로 발전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
법정동은 삼문동이며, 행정동은 내이동으로 되어있으며, 진장으로 불려진다. 10여년전에는 폭우때마다 침수되는 상습 침수지역이나 내이배수장 보수.정비 및 승수로 개설로 해소되었다.

지명유래 (둑 위에서 찍은 진장 풍경사진)



옛날 밀양부 관아에 속한 별포군(別浦軍)의 주둔지가 현 밀양대학과 영남작물시험장 부근이며 지금의 해천강(해천강)은 제방을 축조하기 전에는 강물이 자유로이 드나 들었다 한다. 강변이 마치 넓은 운동장 같이 군사 훈련장으로는 안성맞춤이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별포군의 군사훈련장,곧"진을 치는 장소"라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이라는 것이다.

영남작물시험장 입구 사거리에서 남쪽, 남천교에서 북쪽지역 일원이 진장에 해당되는데 이곳은 法定구역으로는 三門洞에 속하는 번지를 가진 지역이고,行政上으로는 내이동에 속하는 지역으로 되어 있다.

조선시대 내이동 (진장 주변)



내이동은 조선시대 부내면 밀양읍성의 서문 밖 구역이었다. 서문 밖에 100여호가 있다 는 기록(신익전1652)으로 보아 내이동은 일찍부터 민가가 적지 않았다. 읍성 안쪽은 면적이 넓지 않아 인구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지만 읍성 밖의 내이동은 제대천 하류부의 넓은 평지를 끼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다양한 부류의 인구를 수용 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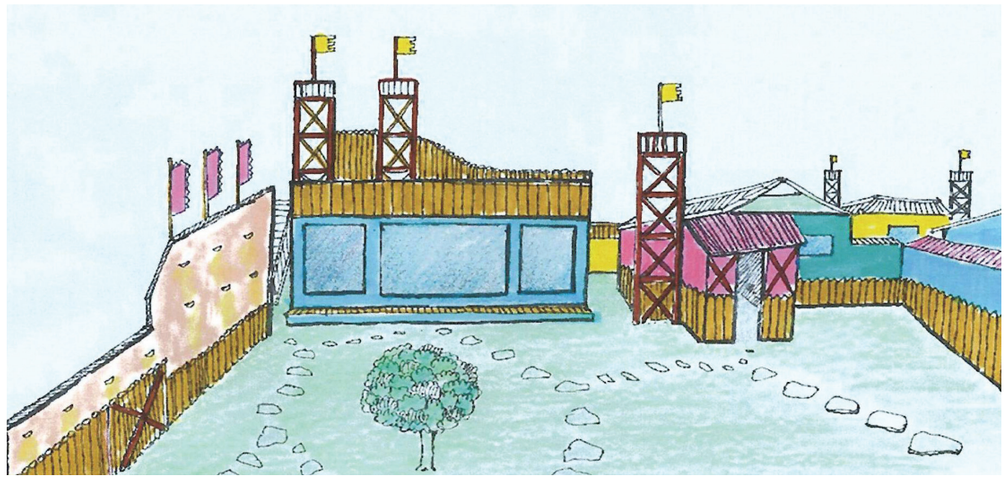
조선시대 내이동은 다른 지역에 비해 남녀성비가 현저히 높았다. 성비가 100을 초과하면 남자가 여자보다 많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이다. 호구총수에 밀양전체가 남녀성비가 68에 불과했다. 이것을 상회하는 곳은 중부지역의 대부분과 동부 및 서부의 일부이다 중부의 밀양읍과 하남면 서부의 상서이동면,즉 무안면 동부의 하동면 즉 삼랑진등의 순이다.
특히 밀양읍에 남자가 많았던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다. 유일하게도 밀양읍은 남녀성비 100을 초과한다 장정의 수가 밀양읍 3,010명은 행정 및 상업적 기능이 집중하므로 관속과 상인 등의 남자가 많았다. 조선초에는 시위군,진군,선군 등 군정이 897명으로서 1,000명에 육박했다. 조선전기에는 수천명에 이르렀으나 임진왜란 후 속오군 510명 등으로 줄어 들었다. 는 기록도 있다. 선군은 밀양의 곳곳에 분산 배치 되었겠지만 속오군은 밀양읍성과 주변에 체류했고 따라서 밀양읍성의 남녀성비
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을 것 같다.밀양읍성의 군병은 최소한 수백명이었을 것이다.

관아의 별포군 주둔지는 오늘날 밀양대학교,밀양고등학교 그리고 인근의 영남작물시험장 일대에 해당된다. 그래서 진장이라고 한다. 삼문리는 2개의 하중도로 구성된다. 작은 하중도는 내이동에 맞닿은 모래밭이었다. 여기가 진장이었다.

별포군

별포군은 1786년에 제작한 지방지도인 「인동부지도」에 별포청이 표시되어 있어 1876년까지는 인동부에 별포군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별포군은 인조 당시의 별포군 설치 논의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병인양요(丙寅洋擾) 이후 대원군이 국방력을 강화하는 과정에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대원군 집권기 지방에 포군(砲軍)을 설치하기 시작하는 것은 1865년(고종 2) 3월에 국왕의 인가를 받아 설치한 함경도 남병영의 별포위군(別砲衛軍)이었으며, 본격적으로 설치되는 것은 병인양요 이후부터였다. 특히 각 지역에 포군을 설치하는데 중요한 전기가 되었던 것은 1868년(고종 5) 7월에 승인받은 충청도 연해읍의 포군 설치 계획이었으며, 신미양요(辛未洋擾)가 발발하는 1871년(고종 8) 4월에 집중적으로 설치되었다. 그리고 대원군이 실각한 이후에는 더 이상 설치되지 않았다. 이러한 포군의 설치는 병인양요 이후 서양 군사에 효과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군대는 오직 포군뿐이라는 인식의 결과로 병인양요 이후 조선의 병제가 포수 중심 체제로 재편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별포군의 규모는 각 읍의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입번하는 방식이나, 급료 등의 규정도 동일하지 않아 운영 방식이 매우 다양하지만 교대로 입번하고, 일정한 급료를 받는 공통점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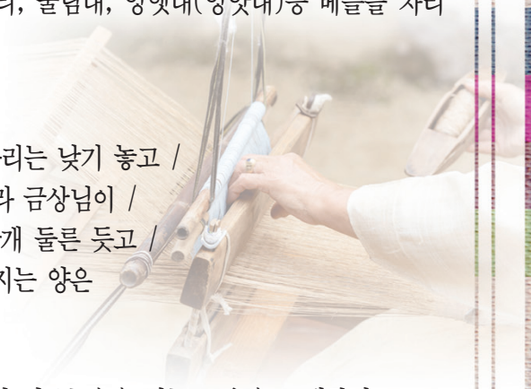
이들이 입번하는 장소는 별도로 마련된 청사였는데 건물은 포청(砲廳), 포군청(砲軍廳), 포수청(砲手廳), 별포청(別砲廳), 별위사청(別衛士廳) 등으로 불렸다. 임무는 입번하여 수직(守直) 하거나, 전략적 요충지에 설치한 포막(砲幕)이나 요망처를 지키거나, 성문, 군기고의 수비, 화약과 탄환 제작에 참여, 성내의 순찰, 각종 행사 의장 사열에 참여하며, 외적이 침입했을 때 출전하는 것이 기본 임무였다.
이외 각종 민란의 진압에도 동원되었다. 포군은 평상시의 훈련이 매우 강조되었으며, 사격술의 연마에 중점이 두어졌다. 또한 사기 진작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화포과가 설치되고 도시(都試) 등에서 조총 과목이 강조되었다. 이들은 전립과 군복, 조총 한 자루, 환도 1자루, 약통 1개 등을 지급받아 무장하였다.
별포군에 편성되면 각 잡역을 면제 받았으며, 화포과를 통하여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었으며, 각 지역별로 창감, 향임 등에 진출할 수도 있었다.
여러 차례에 걸친 외적의 침입을 받으면서 국방력의 강화를 위하여 설치가 논의되었으며, 조선 말기 대원군 집권기에 서양 세력의 침입과 관련한 조선 정부의 대응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 향토문화전자대전



대한제국의 군대가 1907년에 해산되었으니 훈련장은 그 이후 동네 어린이들의 차지가 될 수 있었고 소년시절의 김원봉과 윤세주 일행이 강변의 모래밭에서 축구를 하며 심신을 단련하던 곳이었을 것이다. 오늘날의 진장은 남천강변로와 진장 3길 사이이다.
남천강변로는 제방축조에 의해 조성된 도로이며, 진장3길은 절단된 유로를 따라 만들어진 길이다 진장 일대는 법정구역으로는 삼문동이지만 행정적으로는 내이동에 속한다. 또한 인근에 댓껄, 남문껄 등의 상점가가 있었다. 내이동 주민의 다수는 관속, 군병, 상공인 등이라고 볼 수 있다.

진장과 군관청은 밀양의 독립 운동가를 길러내는 산실이 되었다. 진장은 내이동의 소년이 군병처럼 체력을 단련하던 장소였고, 군관청은 그 자리에 동화학교를 세워 김대지와 황상규 등으로 최수봉, 김상윤, 김원봉 등을 가르치게 했다. 김대지와 황상규가 동화학교에서 교편을 잡을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의 집안이 관아 및 군관과 직접 간접으로 관련된 때문이 아닐까?
지금의 밀양문화원 신축 부지에 나래비집은 잠실로 운영하다 일본이 버리고 간 집이다 .
해방 후 까지도 집집마다 베틀을 가지고 있었고 삼베를 짰다. 조선시대 밀양의 토산물은 삼이었다. 또한 밀양읍에 밀양공립농잠학교(3년제)가 1923년 개교된 것을 감안할 때 양잠, 제사, 견직도 유행했을 것 같다.

밀양에는 실을 뽑을 때 부르는 물레노래가 여럿 전하고, 삼베, 면포 등 베를 짤 때 부르는 베틀 노래도 다수이다. 베틀 노래의 하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전반부는 베 짜는 사람을 선녀(앵화)에 비유하면서 앉일깨(앉을깨), 부티, 눌림대, 잉앳대(잉앗대)등 베틀을 차리는 모습을 노래한다.



옥난간에 베를 낳여 / 베틀다리 네 다리는 / 뒷다리는 낮기 놓고 /
앞다리는 도와주고 / 앉일깨 돋이 놓고 / 우리나라 금상님이 /
용상직에 하신 듯고 /부티라 두른 양은 / 허리 안개 둘른 듯고 /
눌림대 호부래비 / 잉앳대는 삼형제요 / 자질게 지는 양은

후반부는 서울 간 서방을 기다리며 직령,도복,적삼,섶 등 옷을 짓는 모습을 노래한다.

백옥겉이 바래갖고/서울 갔던 서방님은/직령비고 도복비고/
다문 대 자 남았더니/요내 적삼 비어보니/짓도 없고 섶도 없네/
앞집에라 동시들아/서반달에 출한무등/그 재주가 그만 하믄/
텃밭머리 돌아가믄/가짓잎을 훑어다가/섶을 달아 못 입으리
이처럼 조선시대에서 일제강점기까지 내이동 진장지역에서는 누에를 키우는 일에 학생들과 아낙들이 많이 동원되었을 것으로 추정해 본다.
조선시대 이래 농촌의 개별농가는 부업으로 면,삼,명주 등의 베를 짰다. 면포는 상품화할 수 있는 품목이었으며,세금을 면포로 내도록 국가가 권장한 적도 있다. 또한 면포는 왜국이 선호하는 품목이기도 했다.

진장의 사람들



남부 경로당과 미래 경로당에서 노인들을 만나
진장에서 살아온 삶의 이야기들을 듣고 기록한다

영감, 자귀꽃이 피었오

정희준 (가명) 할머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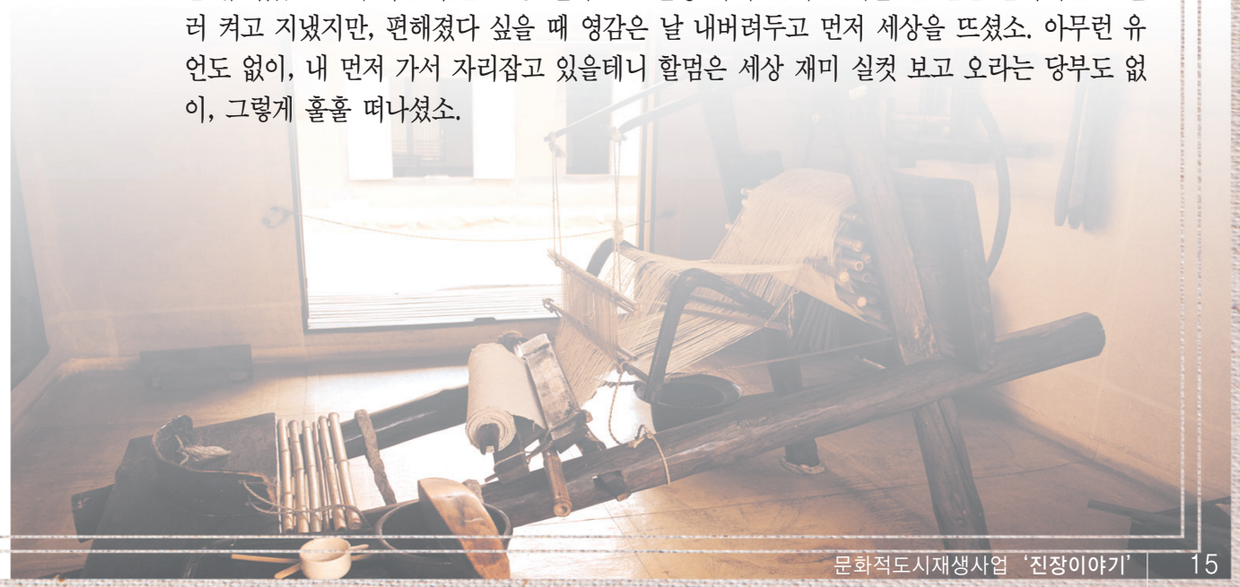
영감,
좋아하시던 자귀꽃이 핏네요. 이 꽃 피면 장마 온다고 준비하라고 안 했능교? 소가 잘 먹는다고 소죽꽃이라 지게에 한 짐 베가 안 왔능교? 소는 뒷전이고 내가 더 좋아서 장독대의 자그마한 단지 가져와서 잔뜩 꽂아두고 '이뿌다, 이뿌다' 했잖오. 밤되면 이파리들이 마주보고 딱 붙어서 잠드는게 신기하고 재밌었오. 그래서 사랑나무라 하고, 이 꽃 마당에 심으면 부부금슬이 더 좋아진다고, 우리 집에도 심고 싶었오 '산에 가면 많은데 뭣하러 집에까지 심노!' 하시던 영감 목소리 귓전에 자글자글 하네요. 계시는 그 나라에도 이 꽃이 피고는 있능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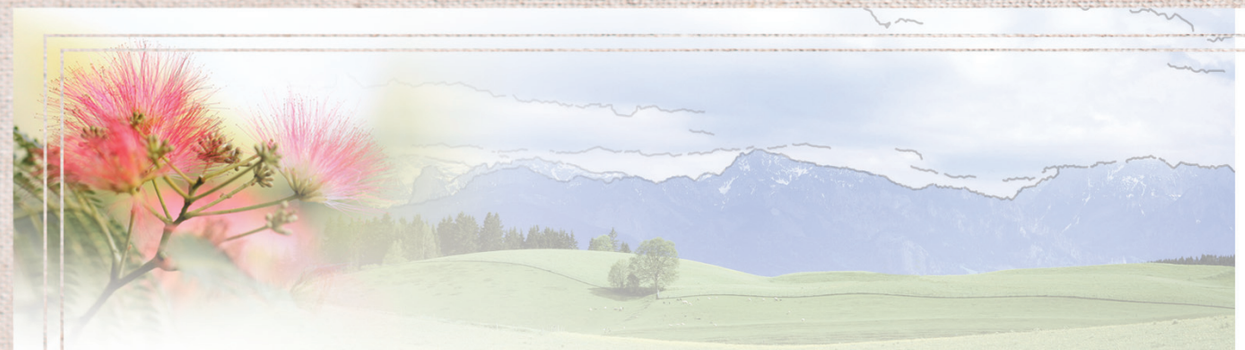
영감,
나도 느지막하게 노인정에 댕기면서 공부도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우리동네 이야기도 듣고 재미있게 살고 있소 요새 노인정에 가면 안 갈카주는게 없오 영천댁이 하고 이우지 칭구들이 자꾸 같이 가자고 하길래 노인정에 노는 재미가 마 디기 좋오

그래, 집에서 놀면 뭐하능교? 가서 남의 말도 듣고, 좋은 소리도 배우고, 노래도 익히고, 시간도 잘 가니 좀 괜찮오? 이번에 또 내 얘기를 적어서 책에 실어준다고 안하요? 내사 내세울 것도 없고 할 얘기도 없다고 '안한다, 안한다!' 캤는데 노인정 칭구들이 모두들 한다니 나도 이바구 꺼내봤오. 한번 꺼내니 우째 청산유수로 쏟아집디다.

영감,
내 이름은 기억이라도 하능교?
내가 정희준이잖수. 하숙생이란 노래를 부른 가수 최희준이란 사람과 이름이 같다고, 나더러 '노래 함 불러 보소! 우째 그 이름 가진 사람은 노래 잘 한다 합디다!' 이렇게 놀렸잖오. 그이도 작년에 하직했오만. 그래 내 오늘은 이 노래 함 불러볼까 하오. 함 들어보실라요?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말자 미련일랑 두지말자. 인생은 나그네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없이 흘러서 간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말자 미련일랑 두지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없이 흘러서 간다.

생각해 보면 인생은 이 노랫말과 꼭 닮았오. 평생 부지런히 밭매고, 논갈고, 소먹이고, 산에서 나무베어 불피워 방 뎁히고, 밥해 먹고, 농사짓고, 자식 뒷바라지 하며, 쉼없이 살아온 삶이었소. 노후에는 힘든 노동 안하고 노인정 가서 놀며 뜨거운 물 콸콸 쏟아지는 보일러 켜고 지냈지만, 편해졌다 싶을 때 영감은 날 내버려두고 먼저 세상을 뜨셨소. 아무런 유언도 없이, 내 먼저 가서 자리잡고 있을테니 할멈은 세상 재미 실컷 보고 오라는 당부도 없이, 그렇게 훌훌 떠나셨소.





영감,
세상 뜨신지 벌써 15년이나 되었구랴. 참 세월 빠르오. 새 중에서 젤루 빠른게 세월이라 안 하요? '눈 깜짝할 새'라요. 그 날, 영감이 보리밥을 먹고잡다 하길래, 버지기에 보리쌀을 빡빡 씻어서는 물을 넉넉히 붓고 압력솥에 밥을 앉혔오. 고혈압과 당뇨가 있는 영감 자시는 음식 수발에 신경 쓴다고 썼오. 강된장을 자작하게 끓여서 열무김치랑 드시라고 밥상 봐 놓고 나는 일하러 갔었오. 옆집 아지매가 내 일하는 식당으로 전화해서는 '영감이 쓰러졌다!' 하길래 택시 타고 달려갔더니 영감은 이미 저 세상으로 떠난 뒤였소. 먹고 싶다던 보리밥도 강된장도 열무김치도 그대로 두고, 아끼던 안경이며 금반지도 남겨두고, 이 할멈 얼굴도 한 번 안 보고 가시다니요. 세상 떠나면서 무에 그리 아쉽고 서러울거 있겠소만 평생을 이러쿵저러쿵 하며 살아도 떠나는건 한 순간이 아니것소. 나도 언젠가는 그리 말없이 가게 되는게 그 길 아닌가 싶소.

영감,
나에게도 꽃같이 어여뻤던 시절이 있었오. 처?적 동무 다섯이 서로서로 귀밑머리 쫑쫑땋아 빨간 댕기 들이고, 연분홍에 연두빛 몽당치마 저고리 입고 남천에서 수제비 뜨며 놀았지요. 여름 밤엔 봉숭아 꽃물 들인다고 손톱을 동여매고 반딧불이 쫓아다닌 기억도 나요. 박꽃은 옆집 순이 얼굴처럼 소박하고, 쏟아지는 별들을 보며 우리는 어떤 신랑을 만나게 될지 꿈도 꾸고 사랑을 기다렸다오.
멍석 깔아놓고 밀서리 콩서리 하며, 강변에서 날밤을 새우기도 했던 처녀적, 그 때 찍은 뒤태 고운 사진이 아직도 남아있소. 언젠가 영감도 그 사진 보며 "어허, 할마씨 곱구먼~" 이라면 오래오래 눈길 머물러주던 모습이 아직도 선연하네요.

영감,
난 친정집 막내딸 이었잖오. 일꾼 2명이 농사일을 거들던 백섬지기 친정곶간에는 언제나 쌀이 넘쳤지요. 부모님과 일꾼 2명의 입성은 모두 내 차지였소. 빨래 삶아 푸새에 다림질까지 하였으니 부엌에서 마당으로 빨래터로 종종거리며 다니다가 언니들 모두 시집간 자리 메우느라 스물 다섯 노처녀가 되었오. 이웃동네 어멈이 중신쟁이가 되어 영감과 맞선보고 바로 날 잡아 시집을 갔던거요. 얼른 애기 들어서길 기다리는데 내리 셋을 잃었소. 첫애는 낳자마자, 둘째는 세 살 때, 셋째는 두어살 때 내 품을 떠났지요. 그 때 내 가슴은 썩어문드러져 애간장이 녹아내렸소. 영감이 내 손 잡아주며 등을 두드려줘서 그나마 내가 살았소.

빌고빌어 또 딸을 낳았고 그 딸 놓치지 않으려고 내가 양볍도 하고 비손도 했소. 간절히 빈 효험이 있었던지 딸 셋이 잘 자라주었네요. 그 뒤로 아들 낳으려고 또 빌어서 내 나이 마흔다섯에 늦둥이 막내 재범일 낳았소. 돌이켜보면 자식을 일곱 낳아서 셋을 잃고 넷은 잘 살고 있으니, 이것도 내 복인가 싶소.

영감,
시집와서 농사 거들다가 그것으로는 애들 공부시키기 힘들 듯 싶어 식당에 안 다녔능교 영감도 알다시피 말이요. 그 흔적이 이제 손가락에 남아서 내 손이 비틀어진 듯 싶소. 다들 힘들게 살던 시절이었고, 다들 온 힘을 다해서 자식 키우고 살림 일구고 그랬지요. 언덕빼기 우리 밭에 올라가서 묏기등을 내려다보면 앞이 훤히 틔여서 속이 다 시원하였오. 영감이 살아계시고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그 밭에 새 집을 지어 함 살아보고 싶은 맘 간절한데 말이요. 맘이야 꿀떡같지만 영감도 떠나고 나 혼자 사는데 절간같은 새 집 지어 뭣하겠오. 그냥 이 집에서 조용히 살다 갈 때 되면 가는게지요. 요즘은 주로 노인회관에서 보내고 있오. 동네 사람들 밥도 해 먹이고, 설거지며 청소도 해 주면서, 필요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 기랴요. 뭣이라도 내 손 거쳐 쓱싹쓱싹 만들어주면 맛있다 하니, 그 맛으로 내가 밥하고 반찬 만들어 이웃들 맛나게 먹는 것 보며 좋아라 하는게지요.

영감,
대구 사는 큰딸 예숙이와 미숙이는 같은 직장에 다니며 일한다카네요. 둘이 얼마나 자매애가 좋은지 내 입에 넣은거 니 입에 넣고, 니 집이 내 집 같이 그리 지낸다 하네요. 셋째 소영이는 부산에 살고 있으니 자주 엄니 찾아 우리 집에 오곤 한다오. 올 때마다 내 좋아하는 찐빵이랑 과일을 잔뜩 사 들고 오니 인정이 좀 많오? 노인회관에 가서 마을 아낙들이랑 나눠먹고 딸 자랑하는 재미로 살고 있오. 그런데 우리 막둥이 재를 우짜믄 좋소? 서른 다섯이 넘었는데 당최 장가들 생각을 안 하니 어떡하면 좋능교? 만나는 사람이 있는가 본데, 좀 더 있다가 결혼하겠다는걸 내가 억지로 떠밀수도 없으니 그냥 애만 태우고 있소. 하늘나라에서 우째 손 좀 써 줄 수 없소? 나도 얼른 막둥이 장가보내놓고 아프지 않고 잘 지내다가 영감 계시는 곳으로 가고싶오.

영감,
나도 팔순이 넘었오. 그 눈깜짝할 새가 내 나이를 언제 이렇게 물어주고 갔는지 몰것오. 그래도 내 살아온 이야기 써 준다는 작가들이 와서 나보고 '어쩌믄 이렇게 새댁처럼 수줍음 많으시고, 웃는 모습도 예쁘고, 말씀하시는 모습도 곱냐' 하길래 기분은 좋습디다. 나이 들어도 칭찬 받고 좋은 말 들으니 내사 기분이 좋아서 영감한테 자랑하고 싶오. 내 살아있는 날까지 자식들한테 짐 안 되고 애 안 먹이고 잘 살다가 영감 곁으로 갈테니 그리 알구 잘 있으소이.

제약산의 여름처럼 푸르른 인생으로 갈무리를!

김계순 (가명) 할머니

내 인생 끝자락에 이런 즐거움이 있을 줄이야!
새벽에 일어나 텃밭 풀을 뽑아주고 서둘러 단장을 한다. 딸들이 사다준 새 옷을 입으니 나비가 되어 꽃 따라 훨훨 어디든 날아갈 것 같다. 뽀얗게 분칠을 하고 입술에 립스틱을 바르니 10년은 젊어 보인다.

나는 단장면 범도리가 고향이다. 100년 넘은 느티나무가 마을을 지키고 그 아래 정자가 오가는 사람들의 쉼터가 되는 곳. 범도리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그 부락에서 딸을 초등학교에 보낸 집은 우리 집이랑 또 한 집밖에 없었다. 아직 왜정 때 국민학교에 들어가 1학년을 다녔는데 해방이 되었다. 일본말을 배우던 학교에서는 해방과 함께 우리말을 맘대로 할 수 있었고 한글이 국문이 되어 다시 1학년부터 시작하게 되었다.

야무져서 배우는 것마다 잘하니 선생님의 신용을 받아 학교에서 배급되는 운동화나 고무신을 제일 먼저 받을 수 있었다. 빨간 운동화를 받고 집에 와 방 안에서 신어보고 또 만져보며 좋아하던 기억이 지금도 눈앞에 선하다. 단발머리를 나폴거리며 까만 치마에 하얀 카라가 달린 교복을 입고 학교를 다닐 때 동네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비록 졸업을 못하고 5학년에서 그쳤지만 나에게 학교 문턱을 넘어 보게 기회를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린다.
5학년 학예회 때 나는 입고 갈 한복이 없었다. 무용도 잘 하고 노래도 잘하는 내가 학예회에 참석을 못한다고 하니까 친구들이
"순아, 순아, 걱정하지마. 뭐든지 잘하는 네가 학예회에 빠지면 어떡하니? 우리가 다 마련해 줄게."

그러면서 곱디고운 한복을 친구들이 빌려와 내가 입고 노래며 무용을 할 수 있게 해주었다. 전교생이 보는 앞에서 꾀꼬리같은 목소리로 합창을 하고 장단에 맞춰 무용을 해서 박수갈채를 받았던 때를 생각하면 까마득한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진다. 큰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조카들을 공부 시켜야 했기에 딸인 나를 더 이상 학교에 보낼 수 없어 6학년을 올라가지 못하고 5학년에서 그치게 했으나 이미 나는 구구단이며 곱하기까지 다 배웠기에 까막눈으로 살지는 않았다.

친정 역시 농사를 지어 자식을 가르쳤지만 부모님은 내게 들일을 시키지는 않으셨다. 집 안에서 십자수를 놓고 친구들과 공기놀이, 사방치기하면서 노는 게 나의 하루였다. 어머니께서 세상물정을 모르셨기에 집안의 돈을 맏이인 내게 맡기셨는데 아버지는 밤이 되면 공연히 무슨 물건이니 농사 도구를 사야한다며 돈을 달라고 하셨다. 한참 노름에 빠지셔서 밤만 되면 노름방에 가고 싶어 안달이 나신 거였다. 못준다고 감춰도 기어이 빼앗아 가시던 아버지는 논 두 마지기를 하룻저녁에 날리신 적도 있었다. 그래서 어머니는 동생들 육성회비를 꾸러 다니시느라 아침이면 남의 집 울타리를 기웃거리기가 일쑤였다. 얼마나 폭폭하셨을까 우리네 유년시절이 집 저 집의 고충들이다.

잡화를 팔러 다니던 시누이가 우리 집에 자주 왔는데 나를 눈 여겨 봤고, 이웃마을에 살고 있는 동생을 중매하여 나는 시집을 가게 되었다. 그 때 내 나이 스무 살로 신랑 얼굴도 못 보고 시집을 가게 되었는데 시댁이 너무나 가난하여 잔치도 못하였다. 기어들어갔다가 기어서 나와야할 정도로 쓰러져가는 초가집에서 8남매를 키우고 계시던 시부모님은 그래도 먹고살만 하던 집에서 온 나에게 미안해서 그러셨는지 참 잘해주셨다. 놉(매일 날삯을 주어 일을 시키는 일꾼)을 얻어 일을 할 때도 시어머니가 밥을 다 하셨다. 8남매의 맏이인 남편은 결혼 후에 군대를 갔는데 그래도 새색시 생각하여 화장품도 몰래 사다주고 보름 만에 한 번씩 휴가도 나왔다. 남편은 자신이 학교를 못 다닌 것을 평생 한으로 여기며 자식들만큼은 어떡하든 공부를 시킨다고 그 힘든 농사를 밤낮으로 매달려 했다.

남편은 69세 때 위암에 걸려 병원에서 반년을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겨우 70살이 되고 초이레 되던 날 영영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갔으니 그보다 원통하고 서러운 게 없다. 아들 삼형제 대학 공부 시키고 딸 셋 고등학교까지 마치게 했으니 장하기 이를 데 없지만 남편이 고생만 하고 떠나 마음이 참 안됐다. 이 좋은 세상을 함께 누리면 얼마나 좋을까?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마음 둘 곳이 없던 나는 큰 애기 때 다니던 장로교회를 다니기 시작해 올 해로 22년이 되었다. 시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나갈 수 없던 교회를 남편을 잃고 다시 다니게 되니 마음이 울적할 때 큰 위로가 되고 죽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되었다. 그저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곁으로 가면 된다는 소원이 생겨 마음이 늘 평안하다.

큰아들은 직장을 다니다가 고향으로 내려와 농사를 짓기 시작한 지 몇 해 되었는데 농사짓는 게 아직도 어설프다. 애를 쓴다고는 하지만 가보면 묵은 땅이 더 많다.

둘째아들은 중소기업에 다니는데 정년이 다 되었지만 5년이 연장되어 더 다니게 되었다니 다행이다.

막내아들은 나에게 얼마나 잘 하는지 모른다. 집안에 뭐가 고장 나면 즉각 와서 고쳐주고 화장실에 문제가 생기면 시원하게 뜯어 고쳐놓는다. 며느리는 또 얼마나 꼼꼼한 지 건강검진을 받게 하여 치매예방 약이니 뇌졸중 예방 약 등을 매번 타다 준다.

딸 셋은 모두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요양원에서 일하고 있는 큰 딸이 엄마 잘 봐달라며 복지관에 한 턱을 내기도 했다.

친정엄마는 올 해 106세로 남동생이랑 살고 계신데 올케가 얼마나 훌륭한지 움직이지 못하는 시어머니를 다 씻기고 끼마다 죽을 끓여 먹여드린다. 자식 키울 때는 늙어서 봉양해주길 바라며 애지중지 키우는 거라면서 요양원 얘기는 꺼내지도 못하게 한다. 그런 며느리를 둔 엄마는 참 복도 많으시다. 남동생 역시 효도상을 주려하면 자기 부모 모시는 게 무슨 상 받을 일이냐며 번번이 사양한다.

나 역시 착하고 지혜로운 며느리들을 얻었고, 딸들을 다 잘 여웠으니 복이 많은 여자다. 복지관에서 좋은 선생님과 공부도 하고 책도 빌려다 읽고 친구가 생겨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오늘이 참 좋다. 노인정에 진장이야기를 쓴다며 가끔 오시는 선생이 묻는다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젠냐고 그렇다 가만히 생각할 것도 없이 나는 지금이 젤 행복하다고 말했다. 진장에서 자식 키우고 할때는 여름철 비만 오면 방에 물이 들어 늘 힘들었지만 지나고 보니 우리 자식들 늘 건강하고 나도 매일 노인정에 나와서 친구들과 밥 잘먹고 재미있게 놀면서 별 걱정없는 지금이 젤 행복하다는 생각을 한다

가끔씩 고향을 생각하면서 녹음으로 짙어가는 제약산의 여름을 바라보며 내 남은 인생도 푸르름으로 가득하길 소망해 본다.

싸리 꽃 피는 밭 언덕의 꿈

유ㅇ자 할머니

기쁨 그리움 슬픔을 시로 노래했다. 나의 말이, 83년 나의 인생이 시로 남았다.

'싸리 꽃 피는 밭 언덕'

어느 날 밭에 갔다가 김 메고 돌아 올 때
밭 속에 싸리 꽃이 하얗게 피었는데
아낙네가 그 속에서 웅얼거렸다

싸리 꽃 피는 언덕 아래 밭 메는 아낙네야
무슨 사연이 그리 깊어 웅얼거리는 고
군소리 그만하고 열심히 농사지어
남은 자녀들 고생이나 덜 시키게 나

하늘이 푸르다. 나무가 푸르다. 아직 나의 꿈도 푸르다. 세월의 흔적이 머리에 하얗게 남아 있어도 시를 쓰고 싶은 나의 꿈은 고향의 산과 벌판에 꿋꿋이 서 있는 소나무처럼 푸르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이미 나의 꿈이 숨 쉬고 있는 고향에 가 있다. 스물두 살에 결혼을 하면서 떠나 온 고향산천 풍경이 생생하게 펼쳐진다. 그럴 때마다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던 유년의 꿈들이 같이 떠오르곤 한다.



초등학교 다닐 때는 지금처럼 도로 정비가 잘 되어 있지 않았고 냇물에 다리도 없었다. 겨울에도 물이 많은 냇물을 건너려면 신발을 손에 들고 건너서 초등학교를 가야 했다. 다른 친구들은 아버지 등에 업혀서 냇물을 건넜지만 나에게는 따뜻한 등을 내어 줄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그 어린 나이에도 마음이 저릿하게 아프도록 그리웠다. 아버지 등에 업혀서 냇물을 건너고 있는 친구 뒤를 따라 가면서 수없이 아버지를 불렀었다. 아버지 .....아버지 .....

아버지가 안 계신 유년시절은 늘 어렵고 힘든 생활이었다. 어려운 살림에 전전긍긍 하시던 어머니를 보면서 차마 중학교를 진학하지 못하고 공부를 포기해야 했다.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시절 이었지만 그때 꿈꾸었던 꿈들은 지금까지 켜켜이 내 삶에 보석처럼 박혀 있다. 제대로 공부를 했더라면 지금 쯤 나는 시인이나 화가가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을 갖지만 어렵고 힘들 때마다 시를 쓰면서 견딜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위안을 얻는다. 지금도 내가 좋아하는 안도현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는 시를 암송 할 정도로 시는 나의 삶에 큰 원동력이 되었다. 황진이의 시와 이순신 장군의 시는 큰 감동으로 가슴에 남아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 그런 울림들은 삶의 곳곳에서 슬픔과 기쁨을 노래하게 한다,

결혼하고 오십년이 지나 친정에 갔을 때 조카가 죽고 오빠가 돌아가셔서 계시지 않았다. 너무 어처구니없는 슬픔 앞에 오히려 눈물조차 흘릴 수 없었다. 망연자실해서 하늘만 바라보았다.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던 현실이 비통할 뿐이었다. 그때 썼던 시는 아직도 내 기억 속에 눈물 자국처럼 남아 있다.

‘진장 강변’

장마가 지면 물이 몰아쳐서
자갈 강변 같던 냇가와 포플라 나무 다 어데로 가고
도로가 떠내려 간 자리에 웅덩이가 생긴다.
학교 갔다 오며 구경하던 피라미 미꾸라지 오물오물 살던
그 것은 다 어데로 가고 신작로와 뚝방 뿐이로구나

한탄 하며 동네 골목길 들어서면
집은 장마로 다 무너져 황성옛터가 되고
남은 것은 감나무 한 그루와
전봇대 위에 까마귀 한 마리 뿐이로구나

사람이 왔다고 까악까악 우는 까마귀 소리
서글픈 마음에 더 눈물이 나고
골목길 뒤 돌아 서서 나올 때 한심스럽고 한탄스러워
시로 써보는 내 마음 뿐이로구나

시를 쓸 때는 슬픔, 기쁨이 글자 한 자 한 자로 살아나서 나를 위로해 주었다. 치매 초기라는 진단을 받았지만 시를 쓰고 그림 그리는 것은 잊지 않고 알알이 기억하고 있다. 그냥 말하면 줄줄이 내 삶이 시가 되는 것 같다. 결혼해서 아들 둘 딸 셋을 낳고 평생 농사지으며 해바라기처럼 자식들만을 위해 살았다. 남편은 마흔 여섯에 병이 나서 풍으로 투병 생활을 하다가 끝내는 쉰 넷에 유명을 달리했다. 이 것 뿐만이 아니었다. 아래채에 가면 시어머님도 풍으로 누워 계셨었다. 남편과 시어머님의 병간호를 동시에 하며 살림을 책임져야 했던 시간들을 회상하면 그 고생을 어떻게 이겨내며 살았을까 나 스스로를 위로하게 된다.







‘발자국’

겨울이 되면 눈이 내려
그 위에 발자국이 나붓나붓 한데
한번 가신 님은 영영 오지 않는 구나

지게에 나무 지고 올적에
나는 지게를 끌어 올리고 님은 밀면서
뚝을 올라 왔건만

눈은 내려 진장둑에 수북이 쌓이고
발자국이 나붓나붓 나는데
가신 님은 영영 안 오시네





흰 머리 성성한 지금도 시를 쓰면 내 마음이 푸릇해 진다. 초등학교 시절, 고향산천을 누비던 시절, 결혼해서 남편과 자식들을 키우던 시절, 시절 안에서 같이 울고 웃으며 살아 온 인연들이 생생하게 기억된다. 고향에서 꿈이 싹 텄다면 결혼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진장에서는 그 꿈을 키우며 살고 있다. 미래 노인정에 오니 시집와서 있었던 일을 시로 쓰라고 했다. 일주일에 한번씩 찾아와서 진장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하는 장기자님이 밀양역사에 대해 재미있게 드려주시고 밀양의 지명에 얽힌 이야기들을 꼼꼼하게 평소 노트에 적으며 일기처럼 꾸준히 글을 써 왔던 노력 덕분에 시 쓰는 행복을 느기고 있다. 내가 시 쓰고 있는 것에 관심이 많은 큰딸이 집에 오면 일기를 읽어 보며 엄마를 응원해 준다. 자식에게 인정 받으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어서 보람을 느낀다.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를 시로 쓰다보면 한이 풀리는 것 같다. 즐거움이 많지 않은 나이에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있겠는가.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면서 세상에 대한 욕심을 비우는 연습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내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다. 후손들에게도 말하고 싶다. 지나치게 돈과 명예를 쫓지 말라고.

여든 세 살, 나는 오늘도 시를 쓴다. 평탄하지 않았던 삶의 여정에 등불처럼 희망을 주었던 시. 시를 무엇이라고 해야 할까. 어떤 말이 더 필요할까. 그냥 나의 인생이 시였던 것 같다. 내일도 나의 하루는 한 편의 고운 시로 남을 것이다.



내 인생의 계절, 곱고 풍성한 가을.

김 O 순 할머니

"엄마!"

마당을 가로질러 걸어오는 단발머리 여학생이 환하게 웃는다. 많이 본 얼굴 우리 큰 딸 형숙이와 너무 닮았다. 코앞에 닿으니 우리 동네로 이사 온 우리 큰 딸 형숙이가 맞다. 단발머리 여학생이던 형숙이와 쉰을 넘긴 형숙이. 세월을 타고 나이 들어가지만 내 눈에는 여전히 단발머리 예쁜 딸 그 모습 그대로다. 반찬을 만들어 달랑달랑 들고 나를 찾는 우리 큰 딸은 삼성에 다니던 사위가 은퇴를 하고 우리 동네로 이사를 왔다. 예쁜 집에서 텃밭대신

꽃 가꾸며 따뜻하게 사는 우리 형숙이. 아, 큰 딸을 지척에 두고 친구처럼 노년을 보내는 이 행복한 일상이 내 것 이라니...

주말이면 달그락 달그락 그릇 부딪치는 소리, 손자들 웃음소리로 적막강산 같던 집은 시끌벅적 사람 사는 집이 되어 반가운 손님을 맞는다. 별거 없는 닭도리탕인데 할머니 닭도리탕이 제일 맛있다고 땀을 뻘뻘 흘리며 먹는 우리 손자들 다들 젓가락 드나들기 바쁘다. 시골 할미라 묵은 김치 깔고 고추장 풀어 만든 투박한 솜씨에도 맛있다며 빈말해주는 손자들이 내 기쁨이다. 걱정이 없는 요즘이다. 이제 뜨거운 폭염을 지나고 새벽이면 이불을 끌어다 슬그머니 배위에 얹어야 하는 때가 왔다. 귀뚜라미 소리도 저녁이면 제법 암팡진 울음으로 귓전을 때린다. 우리의 인생도 그러하듯이. 귀뚜라미 소리도 절정일 땐 소음처럼 요란하지만 폭염을 뚫고 저녁 바람결에 한 두 소절씩 들려주는 귀뚜라미 울음소리는 반가운 손님이 아닐 수 없다. 아, 이제 살 거 같다며 마음속으로 찌르르 찌르르 그 장단을 맞춘다.

7남매로 자랐고 7남매를 키웠다. 단장면에 살던 그 유년 시절 아불 마을 이름도 정다운 곳들이다. 갈래머리 소녀 적 순자로 돌아가 본다. 1944년생 우리나이로 일흔 일곱이 되었다. 옛날엔 할머니 소리 듣기 십상이었지만 지금은 시절이 좋아져서 우리 나이는 할머니 축에도 못 낀다. 나 어릴 적 우리 7남매 그땐 쑥 버무리 만으로도 배불렀고 죽 끓여 나눠먹으면서도 정다운 인정으로 허기를 채우곤 했다. 형제들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본지가 언젠지. 죽 끓여먹고 살았으니 어려운 살림이었지만 그 시절도 그리우니 우리네 인생이 그렇듯 버릴게 없다.

10살쯤 되면 동네 아이들은 어른들 따라 다니며 농사일을 도왔다. 풀 뽑기부터 시늉만 낼 수 없어서 오빠들 거들며 내 밥값을 했다. 오빠도 간간이 이겨먹느라 어른들 몰래 오빠한테 슬쩍슬쩍 한 대씩 맞기도 하면서 머슴아 같이 자랐지만 책임감은 오빠 못지않았다. 6.25 난리 중에 할머니의 자식사랑을 고스란히 느꼈다.

21살에 고모님의 중매로 군 복무 중이던 25살 남편을 만나 결혼했다. 남편은 밀양 박씨. 큰아들이라 듬직했고 성품이 좋았다. 남편은 결혼 후에 나한테 넌지시 "임자, 선 볼 때 시계 빌려 차고 옷도 빌려 입고 나갔어. 선보는 자리라 후줄근하게 그냥 나갈 수는 없었지."
웃어넘겼지만 어려운 시절이었고 예의를 지키려던 그 마음을 결혼 후에도 잃지 않으려던 좋은 사람이다.

시댁도 어려운 살림이라 산골짜기에 가서 묻혀 살겠다는 마음으로 시집갔지만 산골이나 시내나 시집살이는 같다. 남편은 결혼하는 날 구들차(온돌을 실어 나르는 차)에 몸을 싣고 우리 집에 도착했다. 인생의 큰 갈래 길에서 어설픈 첫 날을 시작했다. 시집갔을 때 시누이는 10살쯤 되었다. 내가 키우다시피 했고 나를 잘 따르는 어린 시누이한테 정 주면서 시댁이 식구로 바로 다가왔고 시집살이 어려움에 시달리지 않았다. 큰 딸에 아들 하나 낳고 딸들을 줄줄이 낳느라 시아버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 아들 기다리는데 딸을 셋이나 낳아서 우리 애들 천덕꾸러기로 자라지 않게 하려고 마음고생은 많이 했다.



시아버님이 “지지배만 퍼질러 낳아서 어디에 쓸거냐 행상 뒤에 손자가 따라가야 하는데 이 일을 어쩌냐”시며 내 속을 타게 만드셨다. 호롱불에 불 밝히며 공부하면 지지배들이 공부해서 어디에 써 먹을거냐 시며 불호령을 내리셨다. 그나마 위로가 된 건 아이들이 가방 매고 학교 가면서 “어머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 뒤통수만 봐도 배부르고 온갖 시름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큰 아들 큰 딸이 동생들 잘 챙겨서 이만큼 다들 살고 있는 거다. 학교 다니느라 천동에서 방 한 칸에 남매들끼리 옹기종기 살 때 큰 아이들이 동생들 잘 챙겼다. 어려운 살림에 육성회비 안 밀리게 해줬다고 고맙다는 딸이다. 쌍둥이 일순이 이순이 낳고 막내아들이 태어났을 때 경사 난 듯이 온 가족이 기뻐했다. 우리 집에서는 금덩어리 같은 아들이었다.

다들 착해서 옷도 언니 옷 물려받아서 닳도록 입었다. 쌍둥이들이 호롱불 밑에서 공부하고 상 받느라 내미는 손을 보면 소매가 너덜너덜해서 가슴이 찢어졌다. 읍내 가서 예쁜 옷으로 사 입혀서 입성 좋게 해주면 더 기운 날 텐데 그걸 못해줘서 마음 한 편이 아직도 아리다. 애미 마음이 미안하고 가슴 아팠지만 불평 없이 자라준 아이들이 고맙다. 어려운 살림에 부모속이나 썩혔으면 그 애간장 타는 속은 어디서 달랬을까 싶다.

농사가 먹고 살 거리였을 땐 뙤약볕도 찬바람도 다 애물단지였는데 지금은 소일이 돼서 수확하는 대로 아이들 집집마다 나눠주는 재미가 끝이 없다. 비닐봉지에 고추 한 봉지 상추 두 봉지 깻잎 짱아지 담아두고 아이들을 기다리는 그 맛이 일품이다. 오는 대로 하나씩 들려 보내는 그 맛에 이 더운 여름에도 농사를 놓을 수 없다. 노인정친구 임ㅇ재 언니도 세월 속에서 만나 느지막하게 친구가 되었다. 같은 값이면 언니라고 불러주면 좋아한다. 이젠 학교 동무들이 좋은 친구들이다.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마을 앞 코스모스가 기지개를 켜는 가을이다. 내 인생의 지금처럼 편안한 계절이 찾아왔다. 올 추석은 다른 해 보다 더 일러 수확의 기쁨도 보름달의 상서로운 기운도 더 빨리 맞이하게 됐다. 지금의 내 인생은 추석처럼 풍요롭고 한가위 같다. 가을처럼 곱고 풍성한 누이가 거울 앞에 섰다. 이름은 ‘김00’





‘난 귀염둥이 복둥이여. 다들 나를 우리 귀한 애기라고 불렀어’

이복자 할머니 (가명)

“어머나! 엄니. 웃는 모습이 어쩌면 이리 귀여우세요?”
“누구여? 내가 귀엽다고? 하하하하 칭찬받으니 좋긴 한데.”
“진장 엄니들 이야기 들으려고 왔지예.”

시어무이 시집살이? 나 그런 거 몰라. 우리 시어무이 살가운 얘기 하나 해줄까. 옛날 집은 겨울 되면 집까지 통째로 얼었잖아. 초가집 처마에 고드름이 한겨울 내내 대롱 대롱 매달려 있었으니까 얼매나 추운지 말하면 뭐해. 사는 게 고만고만하니 아궁이에 불이나 겨우 때서 궁둥이나 아랫목에 붙이는 게지. 외풍은 또 얼매나 쎈지. 초가집이 별수 있나 겨울 되면 코 빨개지고 손발이 얼음장 같았어. 집도 얼었으니 사람은 오죽했겠어. 시어무이랑 사랑채에서 잘 때 윗목에서 내가 땡땡 얼어 있으믄 아랫목에서 주무시던 시어무이가 슬그머니 내 발을 끌어다 당신 사타구니로 녹여주셨어. 난 못 이기는척 가만 있었제 노인네 사타구니가 얼마나 시렸겠어. 그렇게 나를 아껴주셨지 언 발이 따땃해지면 시어무이 정에 훌쩍거리고 있었제. 시집살이 고추보다 맵다지만 우리 시어무이 그 정에 내가 평생 살 힘을 다 얻었제. 칼바람에 몸이 다 얼었지만 시어무이 사랑이 아궁이처럼 따땃했었지.

딸만 내리 낳다가 드디어 다섯 번째로 아들을 낳으니까 모두 다 좋아서 문지방을 지날 때마다 어르신들이 허허허허 웃으시던 모습이 떠오르네. 그제야 할 일을 다 한거 같아서 내 맴이 얼매나 좋았나 몰라. 나도 몰래몰래 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젖혀서 고추를 확인하고 안심하고, 또 일하다 딸일까 불안해서 다시 가서 진짜 고추가 달렸나 다시 확인하고 몇날 며칠을 그랬다니까. 그리고 밑으로 또 아들일까 했는데 막내딸 하나 더 얻었지. 옛날에 그러고 살았어. 아들 못 낳으면 무슨 죄인마냥 요즘은 딸 낳아야 대접받는 세상이 됐지만 말여. 여자들 세상이여.



"뭔 얘기를 듣고 싶은겨? 뭐, 시집갔던 이야기 해 보라고? 고상 많이 했냐고?"
내가 스무 살 때 고향 ㅇㅇ할매가 ㅇㅇㅇ사는 스물여덜 먹은 군인 한테로 중신을 섰어.
사모관대 쓰고 신랑집에서 혼인식 하고 따악 이틀 자니까 새댁인 나 혼자 놔두고 신랑은 군대로 들어가 버렸어. 기막혀서 할 말이 없데. 눈앞이 깜깜했어.

"뭐? 그때 애기 들어섰냐고? 뗵. 아녀."

신랑없는 시댁에는 시할아부지와 시할무이, 시아부지와 시어무이, 시누이 둘, 시동상 하나와 같이 살았다니까. 시댁 식구들이 줄줄이, 나 혼자 어찌 살라는 건지. 신랑이 6년 동안 군대생활을 혔는데, 휭하니 떠난 지 여덟 달 만에 휴가를 나온 거여. 얼매나 남 사시럽던지...시할무이가 손자가 왔으니까 나더러

"얘야 얼릉 따신 밥을 해라"

하시는거야. 그래도 나는 부끄러워서 고개도 못 들고 대답도 못 하겠는 거야. 우물가에 가서 일단 물 한 동이를 길어와야 허는 데 얼릉 도망가버릴까 해도 아무 것도 없으니까 도망도 못 가겠고, 너무나 부끄러운 마음에 우물가 뒤에 숨어있었네. 기다려도 기다려도 내가 안 오니까 시어무이가 냅다 ◎아와서 야야 얼릉 밥 해라 재촉하시며 내 대신 물 한 동이를 길어서 가시는 거야. 나는 이번에는 장독간에 쌀 푸러 갔다가 또 부끄러워서 장독간 뒤에 얼릉 숨었네. 이번에는 시할무이가 나를 찾으러 나오신 거야. 나는 여전히 부끄러워서 숨어 있었지 할 수 없이 두 분이 밥을 하고 신랑은 밥을 먹자마자 휙 나가 버리대. 시할무이와 시어무이는 야야 너는 왜 그러냐. 얼릉 밥이나 먹으라 안달복달 하시고...

"그래서 그때 애기를 가지셨어용?"

아녀. 그때도 애기를 못 가졌지. 결혼한 지 4년 만에 첫애를 가졌어. 나는 절에 가서 아들을 점지해 달라고 지극정성으로 많이 빌었어. 첫 딸을 낳고 3일 만에 신랑이 여름휴가를 나왔지. 그때가 7월 인데, 신랑이 콩을 훑어 가지고 와서 모닥불에 구워서 나더러 먹으라고 주는 거야. 나는 주는 대로 먹었는데 아, 아기를 목욕시키려고 벗겨놨는데 온몸이 파리처럼 퉁퉁



불어난 거여. 깜짝 놀라서 삼신할미에게 잘못했다고 빌었지. 그러니께 싹 나아버링께 사사를 안 뗄 수가 없더라고. 그런데 3년 터울로 내리 딸만 닛(4명)을 낳았어.

"어머 내리 딸만 넷을 낳으셨는데 구박 안 받으셨어요?

아녀. 내가 시집오니께 논 4 마지기와 밭 1 자리가 있었는데 내가 논 7마지기와 밭 2자리로 늘렸어. 시할아부지가 땅 사놓은 거 누구 앞으로 할래? 하고 물으셔서 한 데 붙은 건 내앞으로 하고 나머지는 시동생한티 떼줬는데 잘한 짓이었지. 내가 쌀농사를 지면 우연찮게 농사가 아주 잘되는 거여. 시할아부지는 "우리 귀한 애기, 우리 애기가 들어와서 부자가 되었네. 우리 애기 손이 이뻐서 내가 금반지 하나 해줘야겄구마."하셨는데 결국 그냥 돌아가셨지만. 난 논두렁도 손으로 직접 다져 만들만큼 야무졌지. 시어무이랑 사랑채에서 잘 때 윗목에서 내가 땡땡 얼어 있으믄 아랫목에서 주무시던 시어무이가 내 발을 당신 사타구니로 녹여주셨어. 드디어 5번 째로 아들을 낳으니까 모두 다 좋아서 문지방을 지날 때마다 어르신들이 허허허허 웃으시던 모습이 떠오르네. 나도 몰래몰래 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젖혀서 고추를 확인하고 안심하고, 또 일하다 딸일까 불안해서 다시 가서 고추를 확인하고 몇날 며칠을 그랬다니께. 그리고 밑으로 또 아들일까 했는데 막내딸 하나 더 얻었제.

"혹시나 남편분이 섭섭한 적 없으셨어용?"

남편은 호인이었어. 나더러 일 고만하라고만 했지.왜 이렇게 했냐 나한테 따진 적도 없고 귀퉁배기 한번 맞은 적 없고 욕 한번 들은 적 없어. 시집살이는 안했지만 겨울에 땔감나무 하는 게 가장 힘들었지 뭐야. 연탄 때니 세상 편하더라고. 신랑은 국민핵교를 나왔는데 키 크고 인물 좋고 멋졌지. 이장을 10년이나 혔어. 그때 면 직원들 밥 엄청 해 먹였네. 신랑은 10년 전에 돌아가셨어. 딸들은 모다 중학교만 가르쳤지. 못해준 것만 생각나서 미안하지 뭐. 아들만 대학을 보내서 ㅇㅇ에서 크게 어린이집 하구 있어. 나이들어 이집 저집 자식들 집 다니며 몇 달씩 지내곤 해. 손주들도 실컷 보고, 유람이 별거여. 타지 사는 자식들 집에서 구경하고 쉬었다가 오는 게 유람이지.마음이 편해서 잘 웃나봐. 사람들이 나보고 잘 웃는다고 해. 처음 보는 사람들도 내가 웃으면서 반기거든. 그렇게 하면 그냥 마음이 좋잖아. 나도 좋고 그 사람도 좋고. 살아보니 찡그리고 성내면 별반 좋은 일이 없어. 복이 오다가도 도망갈 판이여. 웃으면 복이 온다잖아. 웃으면서 살자구. 워떠 내 말이 맞제?



사랑에 빠진 여인.

이정순(가명) 할머니

내 나이 79세. 사랑이 시작되었다. 사랑스러운 여인이 되고 싶다. 또박또박 정성들여서 글자를 쓴다. 너무도 늦게 만난 인연 앞에서 표현할 줄 아는 여인이 된다. 어렴풋이 막다른 곳에 서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남아 있는 인생을 그와 함께 즐기고 싶다. 살아온 인생 중에서 지금 난 가장 평온한 시간이다.

머슴까지 부리면서 살았던 친정 집. 생각해보면 야속하리만치 기억이 없다. 들판을 허덕이며 나물을 뜯던 기억이 왜 그다지도 서럽게만 생각나는 걸까? 입고 있던 옷을 그대로 입고 시집을 가던 날, 해님은 슬펐었는지 구름 뒤로 숨어 버렸다. 엄마가 되어 할미가 되어 있는 지금도 딸을 시집보내던 어미의 마음은 아직도 이해 할 수가 없다.

17살 처녀. 19살 먹은 총각은 겨울이 다가오는 동짓달에 혼인을 한다. 결혼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거적같이 덮여진 집에서 시할머니 시부모님 시동생 시누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식솔이 달려있는 집에서 신혼이 시작된다. 남편의 정이란 말은 과분한 말이었다.

혼인 3개월이 지났을 때 새 신랑은 얼굴도 익혀지기 전에 군대를 간다. 떠나는 남편의 주머니 속에 마음 몇 자라도 적어 넣어주고 싶었지만 표현할 수가 없었다. 글을 모르는 내가 원망스러웠다. 세월이 아주 많이 흘러 겨울은 또다시 내게 아픔을 주는 계절이 된다.

그 사람 앞에서 여자이고 싶다. 나도 여자였다. 여인이었기에 예쁜 것을 보고는 아름답다고 말하고 싶었다. 그리움을 담은 글자로 전달하고 싶었다. 따듯한 햇살도 온 세상을 밝혀주는 태양도 나의 간절함을 대신하지 못했다. 칠월의 푸르름을 말하고 싶었고 뜨거운 태양 아래 인심 좋게 불어주는 시원한 바람은, 당신을 향한 내 마음이라고 그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었다. 매미울음 소리를 편지지에 담아 고향의 냄새를 우체통에 넣어 멀리 보내고 싶기도 했다. 지금 내 가슴은 하얗다고, 당신이 너무 그리워서 마음이 노랗게 변했다고, 보고 싶어서 빨간 눈물이 흐른다고, 가슴은 파랗게 멍이 들었다고, 몽땅 연필을 꾹꾹 눌러가며 밤을 새워가면서 화려한 글 수(繡)를 놓고 싶은 적도 있었다. 그러다 보면 기쁨도 슬픔도 아픔도 하얀 종이위에 방울방울 뚝뚝 떨어진다. 어떤 날은 화려하게, 어느 날은 시원하게,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는 그 밤은, 하얀 베갯잇을 얼룩지게 했을지도 모른다.

아무도 듣지 못하게 혼자만의 하소연을 하듯이 중얼거린다. 밭을 매고 돌아오는 길, 코스모스는 고운 빛으로 줄을 서있다. 가냘픈 몸을 흔들며 '시간 있으면 얘기 좀 하자는데' 바라만 볼 뿐 아무런 대꾸도 할 수가 없다. 괜히 바쁜 척을 하면서 돌아서려는데 '어여쁘다고' 용기 내어 말해보라고 바람은 재촉한다. 어떻게 표현을 해야 맞는 것인지 배워보질 못해본 난, 마음을 몰라주는 바람소리가 원망스럽다.

글을 읽을 줄 모르는 까막눈을 간직한 채 살았다. 세상이 너무 깜깜했다. 지금은 아니다. 마음에 개안 수술을 한 듯이 환해졌다. 늦은 나이지만 그를 만났다. 글씨를 알게 되었다. 나에게도 '글 애인'이 생겼다. 나도 남들처럼 마음을 주면서 사랑을 표현하게 되었다. 이정순이라는 내 이름을 쓸 줄도 읽을 수도 있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진장도, 글자도 척척 읽으며 버스도 타게 되었다. 서툴지만 먼저 떠난 영감을 그리워하는 표현도 한다. 넋두리도 한다.

"지난겨울은 슬픈 계절이었어요. 너무도 아프더라고요. 하얀 눈이 '까맣게 보이네요. 큰아들은 엄마보다 먼저 당신을 만나러 갔네요. 당신과 함께한 삼 개월의 신혼. 그 겨울은 아픈 계절이었어요. 어렸던 내겐 너무 버거운 겨울이었어요. 팔월의 날씨는 뜨거운데 아직도 가슴은 너무 시리고 아리네요. 뾰족뾰족 바늘처럼 하얗게 솟아나는 서릿발은 언제나 녹을까요. 제겐 겨울은 아픈 계절인가 봐요."

하늘은 맑다.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다음 생이 있느냐고 물어 본다. 쓸쓸하다.



더도 바라지 않습니다. 더 바라게 된다면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겁이 납니다. 돌아가신 제 아버지 어머니의 딸로 다시 태어나라고 해도 받아들이겠습니다. 너무도 뵙고 싶으니까요. 사랑을 표현해 주지 않았던 무심한 영감을 다시 남편으로 또 한 번 맞이하라 해도 따르겠습니다. 생각해 보니 그만큼 성실한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지난날 제가 너무 부족한 아내였던 거 같기도 하니까요. 지금은 불쌍하기만 한 남편입니다. 자식들과의 인연을 다시 맺으라해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미는 아직도 주고만 싶은 것이 너무 많으니까요. 부모님도 남편도 자식들도 제겐 소중한 인연입니다. 물질도 이정도만 다시 누려 보라해도 더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처럼 다음 생애도 열심히 살면 될 테니까요. 그러나 컴컴한 세상은 싫습니다. 다음 생애는 제게 공부할 수 있는 인연을 주십시오. 그것만은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쁘게 글자로 인생의 수를 놓아 표현 할 줄 아는 아름다운 여인으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그 사람 앞에서 여자로 살아보면 안 될까요?"

거울을 본다. 논두렁 밭두렁이 얼굴 곳곳에 그려져 있다. 머리털은 하얗다. 허리는 구부정하다. 생각해 본다. 남들은 일곱 살 때부터 학교를 가고 한글을 익혔다. 나 '이 정순'은 남들보다 다르게 살아간다. 자식들부터 가르쳐 놓고 여유 있는 황혼의 시간에 학교를 간다. 젖 달라는 아이도, 밥 달라는 아이도, 글 배우러 가는 길에 보채는 자식도 없다. 오히려 용돈을 챙겨주면서 두둑한 후원을 한다. 가방을 꺼낸다. 늦게 만나게 된 "글 애인"을 담는다. 글 배우러 가는 길. 거리에 배롱나무 꽃이 만발해 있다. 도란도란 꽃들의 수다 소리를 들으며 떠나간 사람을 그리워한다. 보고 싶은 얼굴을 찾는다. 듣고 싶은 목소리를 생각하니 들려온다. 편안하다. 인생의 사계 중에서 79번째의 여름이 지나간다. 늦은 나이에 시작된 '글자 사랑' '글 애인'과 함께 버스를 타러간다.

가방을 들고 노인정으로 글 배우러 가는 79세 여학생, 아니 소녀. 예쁘지 않으세요? 글자와 사랑에 빠진 여인, 아름답지 않나요?



"고추 깻잎 멀미 45년 참 매운 세월이었지"

최정숙 (가명)할매

인생의 반을 고추 깻잎 밭에 앉았었어. 오래 앉아 깻잎을 따면 멀미가 난 것처럼 어지러워. 그날 저녁은 멀미 때문에 잠도 못 자. 우리 할매들이 배운 건 없어도 다들 똑똑 혀. 부모가 그렇게 몸살 나게 일을 해서인지 아이들은 궂은 일 안 시키고 그 대신 공부를 시켰지. 사실 깻잎농사가 애들 시골에 붙잡아 두고 가업이라고 물려주기엔 돈벌이가 크게 되는 것도 아냐. 그래서 아이들 농사 안 시키고 공부 시켰는데 아이들 4년제 대학 다 시킨 건 지금 생각해도 잘한 것 같아.

내 이름은 그 흔한 이름 정숙이여 최정숙. 1932년생이니까 88세여. 고향은 경북 청도면 매전리인데 스물아홉에 진장으로 이사 와서 얼추 60년을 살았지. 한 집에서만 60년을 살았으니 우리 집도 나이가 어느덧 환갑이야. 가는 세월을 어떻게 막아? 어릴 적부터 놀았던 동무들, 옛날에 친했던 친구들은 이미 다 이승을 떠났지. 친한 사람들 하나 둘 다 떠나고 혼자 남는 것만큼 쓸쓸한 일이 없거든.

동네에서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은 별로 없어. 하지만 기억력은 아직도 쌩쌩해. 동네 제사나 생일은 아직도 내가 다 꿰고 있지. 노인정에는 화요일, 금요일에 나오고 나머지는 주로 집에 있어. 오래 살았던 집을 헐고 그 자리에 새로 집을 지었더니 노는 땅이 많아서 들깨도 심고 마실 다니다 보면 하루해가 금방 가. 뒷방 늙은이로 늙지 않아서 천만 다행이야

우리 나이 노인네들은 다 그렇겠지만 고추농사처럼 맵고 어지러웠던 인생이지. 내 부모님은 맏이로 나를 낳으시고 슬하에 6남매를 두셨는데 내 밑으로 다섯을 모두 잃었어. 홍역 때문이었지. 아버지는 결국 재가하고 3남매를 더 두셨어. 이복형제들이랑은 꽤 살갑게 지냈어.
인연이 꼭 꽃처럼 어여쁘기만 하나 내 뜻이 아니어도 운명처럼 다가오는 귀한 인연이 있는 거지.



열일곱에 시집을 가서 스물아홉에 진장으로 이사 갈 때까지 시집살이를 맵게 했지. 말도 못해. 시동생들이랑 우리 애들 같이 키웠지 조카들 뒤치다꺼리하다가 정작 내 아이를 돌보지 못한 일도 허다했어. 아이가 시름시름 앓았는데 변변한 약도 지어 먹이지 못했어. 아이는 결국 생죽음을 맞았지.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가슴 아픈 일이야. 아이에게 많이 미안해. 시어머니는 호랑이처럼 무서웠어. 하루는 내 실수로 비누를 두 길 깊이 양잿물에 빠뜨린 적이 있었어. 시어머니가 경을 칠까 겁나서 키보다 높은 물속을 허우적거렸지만 찾을 수는 없었지. 목숨 걸고 비누를 찾았던 거야.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 감옥소 같은 세월이었지.

인생의 단맛 쓴맛 매운맛 안에 행복이 있어

진장으로 이사 오고 나서는 사정이 좀 나았지. 밤낮 없이 부지런히 일한 것도 있지만 남편이 손 끝 기술이 좋고 수완도 있어서 돈이 잘 모였어. 남편은 농사도 잘 했지만 제방 쌓기와 돌 깨기를 기막히게 했어. 마을 공사가 있으면 그땐 나름 전문가 대접을 받았지. 한 번 일 나가면 세 사람 품삯을 받았으니 올해 땅을 사면 내후년쯤에 또 땅을 살 수 있었지. 땅이 늘고 재산이 늘어나니 살만했고 살림 불어나는 재미는 이 세상 재미중 으뜸 일거야. 하루하루 힘들었지만 희망이 있어서 살만했어. 6,25사변이 터졌을 때 남편은 스물 둘의 나이로 입대했는데 제대할 때가 스물여덟이었어. 6~7년 정도 군 생활을 해서 그런지 살아생전에 돈이 많이 나왔고 지금도 내 앞으로 연금이 좀 나와. 남편은 죽고 국립 현충원에 묻혔으니 명당자리에서 편히 쉬고 있어.

하지만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야.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 나게 서러운 일은 막내딸 낳을 때야. 4월 26일, 날짜도 잊을 수 없어. 당시 논에 놉만 서른 명을 썼지. 살림이 불어 마을에서 방귀 꿰나 끼고 살 때였어. 밥 지어 먹이는 것도 대간한 일이야. 하필 그때 내 몸은 만삭이라 좀 무거워야지. 그날은 좀 이상하다 싶었어. 아침부터 배가 살살 아파 와. 그래도 점심에다 새참까지 먹이고 나서 저녁 새참도 장만해 놓기는 했지. 그런데 화장실에 들락날락하다가 그만 땅바닥에 아이를 낳아버린 거야. 이런 기막힌 일이 어딨겠어. 머리에 흙이랑 모래가 범벅인 핏덩어리를 싸안고 그대로 큰어머니에게로 가서 도움을 청했지. 탯줄도 끊지 않은 채로. 소식을 들은 남편은 처음에는 믿지 못했어.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일하고 있었는데 아기를 낳았다고 하니 이상할 밖에. 동서 형님께 면박을 당하고 나서야 터덜터덜 나에게 찾아오더라고. 하지만 놉들은 양해가 되지 않았나 봐. '여편네가 저녁 안 주려고 저런다'고 한 말이 아직도 서럽고 기가 막혀.

고추농사가 맵고 어지럽기는 하지만 보상도 큰 것처럼 자식 농사는 괜찮았다고 생각해. 남편이 터를 잘 닦아놓아서 자식들 대학 다 보냈고 한 아이는 삼성전자 반도체 임원도 되고, 한 아이는 ㅇㅇ에서 제법 큰 학원을 운영하고 있어. 뉴질랜드로 건너간 셋째 딸 덕분에 해외여행도 해 봤지. 딸아이도 자식 농사를 잘 지었는지 큰아들은 의사가 됐고 작은 아들은 호주가서 1,000대 1 경쟁률을 뚫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 뭐 하는 데인지는 시골 할매라 모르지만 대견해. 아이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자주는 못 보고 남들처럼 명절이나 아버지 제사 때 보는 거지. 하지만 전화는 자주 와. 바쁜데 전화는 뭐하러 하냐고 하면 어머니 목소리 듣고 싶어요 하고 그래. 인사치레인줄 알면서도 그 마음이 그 말이 왜 그리 달달 한가 몰라. 그래도 아쉬운 건 남편이 죽은 후로 꿈에서 한 번도 못 만났다는 거야. 먼저 간 양반이 왜 생각 안 나겠어. 누구는 꿈에 안 나타나면 잘 지내고 있는 거라고 하긴 하더라만. 그 말로 그리움을 위안받고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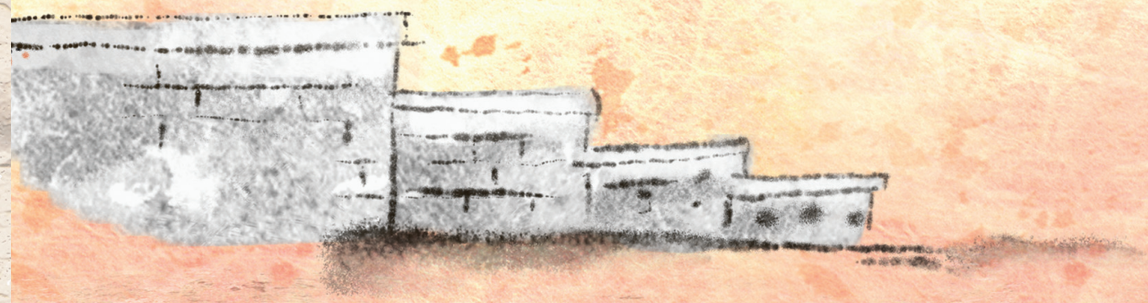
요즘 아이들은 학교 다니고 공부하는 게 감투라도 쓴 줄 알지만 내 자식들은 고맙게도 집안일을 잘 거들었어. 학교 다녀오면 가방 놓고 와서 일손 돕고. 학교 다니기가 수월했던 것도 아니었어. 집에서 초등학교까지 10리 길을 걸어서 다녔지. 그때는 우산이 있어 비옷이 있어. 비가 오면 그냥 맞으면서 걸어가는 거지. 도시락은 다른 애들과 진배없었어. 양은 도시락에 무장아찌와 꽁보리밥. 그리고 생일날은 계란 프라이 넣어주는 게 전부지 뭐. 그래도 가난했지만 인정 많았던 때라 그 와중에도 형제들끼리 까르르 웃고 재잘거리며 학교 다녔지

우리가 나이만 먹었지 인생이 이렇다 말할 입장은 아니야. 하지만 평생 지었던 고추 깻잎농사 얘기라면 할 말은 있지. 이거 하다 말고, 또 저거 하다가 시들어 버리면 세월도 담배연기처럼 날아가 버리는 거야. 농사든 공부든 무슨 일이든 진득하니 한 가지 붙잡고 오래 하면 단맛 쓴맛 다 볼 수 있어. 인생의 맛이 달기만 할 수는 없어서 쓴맛 매운맛 안에 보람도 있고 행복도 있고 낙도 있는 것 같아. 희로애락을 다 맛보아야 진짜 인생이지, 안 그래? 진장에 비가오면 물이들고 물이 빠지면 가재도구 말리고 또 다시 시작하고 하는 것처럼 인생이 다 그렇지 뭐



진장이야기

발 행 일 2019년 11월
발 행 처 밀양시문화도시센터 / 055)355-0306
제 작 다비드커뮤니케이션즈 / 055)352-4530



이책은 2019년 밀양시 문화도시재생 사업의 일부로 제작되었습니다.